

유로키나제 수익성“ 최악”

녹십자, 원료 생산중단 ... 중외제약 등 개점휴업상태

혈전용해제인 유로키나제가 인노중에서 추출하는 원료를 점차 수입으로 대체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키나제는 녹십자에서 88년 일본녹십자와 기술제휴로 인노로부터 분리·정제한 Plasminogen 활성화소 원료로부터 제품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람의 뇨중에서 추출하여 생산하고 있는 유로키나제 원료의 운송비 및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원가구조를 악화시켜 부득이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원료를 자체 수급하여 제품을 생산하던 때와 비교해 자연히 수익성면에서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혈전용해제 시장은 한계상황을 드러내며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어 최악의 시장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키나제 생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2	1993	증감률
녹 십 자	102.8	113.8	11
유 한 양 행	5.0	7.9	58
동 아 제 약	1.1	4.9	345
한 올 제 약	0.9	2.4	167
경 동 제 약	4.5	2.0	▽56
제 일 제 당	7.0	1.9	▽73
유 영 제 약	1.2	0.6	▽50
합 계	122.5	133.5	9.0

이같은 상황 때문에 중외제약·동일신약 등 3 4개 기업들이 유로키나제 제조허가를 받아놓고도 생산하고 있지 않아 개점휴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녹십자는 다른 생산기업에 비해 대량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이점을 이용,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는 이같은 국내시장의 악화에 따라 독일 등 유럽 5개국에 연간 10억원 정도를 수출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미국이 액틸라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유럽은 스트렙토키나제를 보편적인 혈전용해제로 채택하고 있

기 때문이다.

한국베링거잉겔하임은 액틸라제를 수입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품은 TPA(Tissue Planinogen Ativate)라는 원료를 사용한 최초의 유전공학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존 유로키나제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돼 주목을 끌고있다.

실제로 미국·대만 등에서는 액틸라제가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있고 점차 세계 각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액틸라제가 아직까지 확고한 자리를 못잡고 있는 이유는 50ml 1vial당 77만원으로 유로키나제에 비해 50%정도 고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93년부터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등록됨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유로키나제와 가격경쟁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는 기존 시장방어를 위해 조만간 프로유로키나제라는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규모가 80억원 정도인 유로키나제는 93년 133억5000만원을 생산, 92년 122억 5000 만원에 비해 9% 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업별 93년 시장점유율은 녹십자 85%, 유한양행 6%, 동아제약 4%, 한올제약 2%, 기타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일제당은 92년 2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급락하는 부진을 나타냈다.

<화학저널 1994/10/10>